

광주·전남 핵심사업 정부 추경예산에 대거 반영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5억 확보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 등 포함
전남 호남고속철도 2단계 1000억
에너지공대 지원·무안공항 활주로

새 정부의 추경예산에 광주·전남 발전의 마중물이 될 주요 핵심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23일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 예산으로 광주 786억원, 전남 2027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을 보면 광주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715억원)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2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구축(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R&D)(1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30억원) 등이다.

특히 모빌리티 AX실증랩은 1차 정부 추경에 확보된 인공지능(AI) 전략사업 예산 153억원에 더해 추가로 반영,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 국정기획 해설서에 'AI 선도도시 광주'가 명시됨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지원 아래 2단계 사업

정부 추경안 광주·전남 주요 예산

사업명	반영액
광주도시철도 2호선	715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30억원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사업	20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1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1000억원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출연금	100억원
신안 흑산도항 개발사업	73억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	37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9억원

을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소버린 AI(자국 인공지능)'를 확보하는 일에 앞장설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도 강화됐다.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초격차 스타트업 등 R&D·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가 반영돼 지역 혁신기업 성장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1·2단계)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시철도 1호선 LTE-R 통합무선망 사업도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 11억원이 추가 확보돼 철도 운행의 안전성



시도지사협 호남권 정책토론회

고 있다.▶관련기사 2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호남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광주광역시 제공

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광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국비 33억6000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

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상생카드'의 안정적 운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광주상생카드는 지난 1~2월 10% 특별 할인기간 동안 총 1326억원의 사용액을 기록해 전년도 하반기보다 42% 증가한 소비효과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견

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며 "광주의 미래 산업과 민생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오지현·정상아 기자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李대통령, 첫 장관 인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외교 조현·과기 배경훈·해수 전재수
농림 송미령 유임...국조실장 윤창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인선을 단

행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는 전북 3명, 전남 1명 등 총 4명이었다.

강홍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안규백 의원(전북 고창)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순창),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전북 김제)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3선 김성환 의원(전남 여수)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동부교육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全南日報